

# 2018/19 무역사기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본 자료는 국내업계의 무역사기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본 자료에  
언급된 대응방안뿐만 아니라 사전 신용조사나 수입자  
사무실 방문, 수입자 영업상황 변동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요약

I. 무역사기 현황	2
II. 무역사기 유형 및 대표사례	4
1. 이메일 무역사기	5
2. 결제사기	10
3. 선적불량	13
4. 금품사기	17
5. 서류위조	19
6. 불법체류	22
7. 기타	23
III. 무역사기 유형별 대응방안	26
IV. 관련 웹사이트 주소	31

## 요 약

-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전 세계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우리기업 대상 무역사기는 총 82건으로 집계
- 지역별로는 동남아, 중동,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역사기 사례 접수
  - 동남아는 조사기간 중 가장 많은 무역사기가 접수된 지역으로 전체 사기 발생 건수의 약 21%(17건)를 점유
  - 중동, 유럽도 주요 발생지역으로 각각 전체 건수의 20%, 17% 차지
- 카타르, 태국, 터키, 중국에서 가장 많은 무역사기 사례 접수
  - 카타르에서는 이슬람 종교부 등 현지 정부기관을 사칭해 입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 시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태국, 터키, 중국에서는 결제사기, 선적불량 등의 사례 접수
- 결제사기, 이메일 무역사기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
  - 물품을 선적했는데 대금을 주지 않는 결제 관련 사기가 전체 발생 건수의 약 23%를 차지하고, 이메일 무역사기가 20%로 뒤를 이음.
- 사기 발생 후에는 대금회수 등 문제해결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필수
  -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면서 제3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이메일 무역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니 주의 필요
  - 거래 전, 상대 해외업체 및 담당자에 대한 신용도 조사는 필수
  - 신흥국과의 거래, 또는 대형거래인 경우 무역보험, 신용장 거래 등을 통해 안전장치 확보

## □ 조사개요

- (조사목적)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우리기업 대상 무역사기 현황 분석 및 대표사례 공유를 통한 향후 피해 방지
- (조사내용) 2018.9월~2019.8월(최근 1년) 기간 중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기업 대상 무역사기 지역·유형별 현황 및 대표 사례
- (조사대상) KOTRA 해외무역관\*
  - \* 84개국 127개 무역관

## □ 무역사기 현황

- (전체)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건수는 총 82건
  - 무역관에 접수된 건수만 포함, 실제 발생 건수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측
  - 작년 같은 기간 무역관에 접수된 건수와 비교 시 40% 감소
  - \* 작년 동 기간 집계된 무역사기는 총 137건
- (지역별) 동남아, 중동,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역사기 사례 접수
  - 동남아는 조사기간 중 가장 많은 무역사기가 접수된 지역으로 전체 사기 발생 건수의 약 21%(17건)를 점유
  - 중동, 유럽에서 발생한 무역사기는 각각 전체 건수의 20%(16건), 17%(14건) 차지
  - 아프리카는 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7%(6건)로 비중 감소
  - \* 작년 동 기간 아프리카에서 접수된 무역사기는 전체의 26%(36건)를 차지
  - 북미, 일본, 서남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무역사기 위험이 낮은 편

< 아프리카 무역사기 정말 감소했을까? >

아프리카는 무역사기 시도 사례가 자주 보고되는 지역이나, 실제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다소 적은 편임. 이에 따라 해외무역관에 직접적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가 적은 것으로 추측됨. 또한, 국내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소재한 기업과 거래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고, 현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기 유형이 정부기관 사칭 등 다소 과장된 수법이 많아서 국내업체가 비교적 쉽게 사기라고 인지할 수 있음.

○ (국가별) 카타르, 태국, 터키, 중국에서 다수의 무역사기 사례 접수

- 카타르에서는 이슬람 종교부(Ministry of Endowments and Islamic Affairs, MEIA) 등 현지 정부기관을 사칭해 입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 시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태국, 터키, 중국에서는 결제사기, 선적불량 등 사기 사례 접수
-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비중은 낮지만 사기 사례 접수

○ (유형별) 결제사기, 이메일 무역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

- 물품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는 결제 관련 무역사기가 전체 발생 건수의 약 23%를 차지하고, 이메일 무역사기가 20%로 뒤를 이음.
- 이밖에 선적불량(16%), 금품갈취(11%), 서류위조(11%), 불법체류(1%) 순으로 발생

< 2018/19 해외 무역사기 접수 건수 (지역 / 유형) >

지역 \ 유형	결제 사기	이메일 사기	기타	선적 불량	금품 갈취	서류 위조	불법 체류	총합계
동남아	4	1	5	4	0	3	0	17
중동	4	1	2	2	7	0	0	16
유럽	1	6	3	1	1	2	0	14
아프리카	1	0	1	1	1	1	1	6
중국	3	2	1	0	0	0	0	6
중남미	3	2	0	1	0	0	0	6
CIS	1	0	1	2	0	1	0	5
북미	1	2	0	0	0	2	0	5
서남아	1	1	1	1	0	0	0	4
일본	0	1	1	1	0	0	0	3
총합계	19	16	15	13	9	9	1	82

## II 무역사기 유형 및 대표 사례

### □ 무역사기 7대 유형

- 무역사기는 두 가지 이상의 위법행위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으나, 목적 및 방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7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

< 무역사기 7가지 대표 유형 >

연번	사기유형	내용
1	이메일사기	사기범이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을 탈취하여 거래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제시점에서 바이어에게 결제은행이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유형
2	결제사기	상품을 수령하고 나서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접촉을 회피하는 유형
3	선적불량	계약 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으나 수출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고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수출업체가 의도적으로 선적을 거부하거나 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 상품을 선적하는 경우가 해당 (예: 산업쓰레기, 하자 물품)
4	금품사기	국제입찰, 원부자재 공급 등 계약추진에 필요한 입찰서류 구입비, 로비자금, 변호사 비용, 공증비용, 수수료, 담당자 선물명목 등으로 금품을 편취하거나 국제기구, 공공기관, 대기업 직원 등 신분 사칭
5	서류위조	구매대금 입금영수증(송금증), 법인등록증, 세금납부증명서, 수표 등을 위조하고 입금을 완료했다며 허위 물류회사를 통해 납품을 요구하고 운송비 및 제품 편취
6	불법체류	바이어로 위장하여 접근 후, 제품 확인을 위한 국내공장 방문 등의 구실로 비자 초청장을 요청하는 경우
7	기타	해외투자 사기, 제품 상표권을 무단 등록하고 현지에서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사기, 고의적으로 기업을 부도 처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등

## □ 유형별 특징 및 대표 사례

### ① 이메일 무역사기

-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하는 사기 형태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  
\* KOTRA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무역사기 유형임.
- 거래업체 간 주고 받는 이메일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계좌번호 변경을 요청하며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 기업규모, 바이어 소재국과 무관하게 어떤 기업이라도 타깃이 될 수 있음.
- 특정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범죄인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의 한 종류로, 수법이 정교해 사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음.  
\* 작살을 의미하는 스피어(Spear)와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의 피싱(phishing)이 결합된 용어로 이메일 무역사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타깃형 공격 범죄

< 최근 5년간 유형별 무역사기 발생 현황 (2015~2019.8) >

유형/시기	이메일 사기	기타	서류위조	금품갈취	결제사기	선적불량	불법체류	합계
'15~'17.8	58	31	12	13	7	18	0	139
'17.9~'18.8	25	17	34	21	15	9	16	137
'18.9~'19.8	16	15	9	9	19	13	1	82
합계	99	63	55	43	41	40	17	358

### <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메일 무역사기 >

이메일 무역사기는 불특정한 다수의 개인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을 노리는 타깃형 온라인 범죄인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의 한 종류임. 해커들은 특정 기업을 택한 후,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비즈니스 이메일에 접근해 이를 탈취하거나 오랜 기간 기업 간 주고받는 내용을 지켜봄.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기업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는 메일을 바이어에게 보내서 제3의 해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이를 가로챈.

최근 국내기업과 해외업체 간 이메일 무역 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해외 수사 기관에서 한국 경찰청으로 요청하는 국제공조도 증가하고 있음. 이메일 무역사기는 국내와 해외 등 최소 3개국 이상을 경유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사법공조가 요구되는 복잡한 케이스로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함.

□ 원자재 수입대금을 잘못된 계좌번호로 송금한 국내업체

- 발생시기 : 2018년 10월
- 발생국가 : 중국
- 피해금액 : 없음 \* 피해금액 US\$ 186,000 전액회수

중국에서 인테리어 원자재를 구매하고 있는 국내업체 E사는 2017년 11월경 상하이 소재 모 대만계 업체 Y사와 미화 186,000 달러의 원자재 수입계약을 맺고, 2018년 10월 하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리고, 송금시기가 다가오던 10월 중순 E사는 Y사로부터 별도의 송금계좌를 안내받았다. 이에 E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변경된 계좌로 미화 186,000달러를 입금했다.

그러나, 이후 Y사에 송금사실을 통지하자 Y사는 자신들은 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계좌 변경 요청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이에, 이메일 무역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한 E사는 11월 중순 KOTRA 상하이 무역관을 찾았다. 무역관 담당자가 고문변호사와 함께 수취인계좌 은행 소재지 파출소에 가서 해당 사기 건을 신고 하였으나, 파출소에서는 수취인계좌가 중국 내 계좌가 아닌 해외계좌 (Offshore Account)이기 때문에 중국 경찰의 관할권이 없어 해결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무역관 담당자는 고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와 인맥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여러 노력 끝에 현지 경찰서를 설득해 아직 돈이 인출되지 않은 계좌를 동결시키는 데 성공했다. 몇 개월 수사 끝에 중국 경찰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불법 자금임을 인정 하고, 원 송금인 계좌로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E사는 사기로 날릴 뻔했던 금액을 전부 회수하게 되었다.

### □ 말레이시아 은행계좌로 잘못 송금한 바이어

- 발생시기 : 2019년 3월
- 피해금액 : US\$ 88,000

- 발생국가 : 일본

2019년 3월, 한국기업 K사를 가장하여 “최근 세금과 은행 수수료가 많이 발생해서 말레이시아 계열회사에 현지 은행계좌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니, 물품 대금은 앞으로 이쪽으로 보내라” 는 메일이 한국기업 K사와 거래 중이던 일본 바이어 F사에 도착했다.

바이어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말레이시아 소재 은행으로 물품 대금을 송금했다. 몇 주일 후 대금 입금이 안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한국기업 K사가 바이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나서야 일본 기업의 메일이 해킹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 □ 유사한 이메일 주소로 국내업체를 속인 해커

- 발생시기 : 2019년 2월
- 피해금액 : US\$ 9,250

- 발생국가 : 인도

2019년 2월, 국내기업 A사는 화학제품을 공급하는 인도 B사에 제품을 발주하고, 가격과 주요 재원에 대해 협의 후 거래를 시작했다. 두 기업의 이메일 교신 내용을 해킹한 해커는 B사의 이메일 주소와 유사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 A사에 별도의 은행계좌 정보가 담긴 인보이스를 송부했다. 이에 A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계좌와 이메일 주소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문의했다. 해커는 회계 감사때문이라고 회신하면서도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화제를 전환했다.

결국 A사는 위조된 인보이스에 적힌 계좌로 송금했고, 해커는 송금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해당 이메일 주소를 삭제했다. 이후 A사는 B사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스웨덴 은행으로의 계좌 변경 요청

- 발생시기 : 2018년 11월
- 발생국가 : 싱가포르
- 피해금액 : US\$ 218,000

국내기업 A사는 2018년 11월 수년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오던 거래처로부터 송금계좌가 싱가포르 은행에서 스웨덴 은행으로 변경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별 다른 의심 없이 2회에 걸쳐 변경된 계좌로 대금을 송금했다.

그러나, 송금 후 싱가포르 거래처와 통화하던 A사는 거래처가 계좌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메일 무역사기를 당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A사는 국내 은행에 급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국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

그러나, 한국으로부터 송금취소 및 자금반환을 요청받은 중개은행 JP Morgan은 스웨덴 은행을 접촉했으나 해당 은행으로부터 “이미 스웨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자금반환은 불가하다”는 전문을 받아 한국 측에 전달했다. A사는 송금한 돈을 해커가 인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스웨덴 은행으로부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 터키에 있는 은행계좌로 대금을 보내라는 거래처

- 발생시기 : 2019년 8월
- 피해금액 : US\$ 400,000

○ 발생국가 : 프랑스

국내기업 A사는 프랑스 글로벌 기계 제조업체 B사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대금의 30%는 B사의 중국 상하이 지사로, 나머지 70%는 프랑스 본사로 송금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금 지불 관련 협의 중 B사의 메일이 해킹당하면서 A사는 상하이 지사로 보내기로 한 대금 30%를 사기업체가 유도한 터키 계좌로 송금했다.

A사가 대금을 송금한 이후 해커는 대금 수취를 위해 A사를 상대로 송금장을 요청하는 한편, 송금은행에 수취자 명의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기임을 눈치 채지 못한 A사는 결국 해커의 요구사항을 따랐고, 해커는 30% 대금을 편취했다. 해커는 이후에도 계약과 다르게 나머지 70% 대금도 터키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했다. A사는 B사의 다른 담당자와 교신 후 이메일이 해킹된 것을 알게 되었다. A사는 터키 은행을 상대로 대금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해커에게 대금이 지급된 이후였다.

## ② 결제사기

- 해외무역관에 가장 많이 접수된 사기 유형으로 상품을 선적했으나 바이어가 대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해당됨.
-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며,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 비율을 보임.
- 최초 거래기업뿐만 아니라, 거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오던 바이어가 갑자기 영업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결제사기 유형 대표 사례 >

### □ 수출대금 미지급 후 연락 두절

- 발생시기 : 2019년 7월
- 발생국가 : 파키스탄
- 피해금액 : US\$ 717,000

국내기업 N사는 파키스탄 바이어 D사와 8년 간 거래를 해왔다. 그러나 2018년 중반부터 바이어가 대금지급을 미루기 시작해, 2019년 7월 기준 71만 7천 달러에 달하는 대금이 연체되었다. 바이어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이 끝난 건들에 대해서도 추가 디스카운트 및 A/S 비용 지원을 지속 요구해왔으며, N사와 연락을 끊고 신규 한국 거래처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결국 N사는 7월 초 D사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다.

카라치 무역관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당 바이어를 직접 면담했다. 바이어에게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디스카운트 및 A/S 비용 지원 등 과도한 요청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이는 향후 한국기업과 수입거래 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바이어는 이후 한국기업과 대화를 재개하였고, 일시 변제는 어려우나 월별로 나누어 9월 초부터 변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 □ 기존 거래처에 의한 결제 미이행 및 연락 회피

- 발생시기 : 2018년 10월
- 발생국가 : 수단
- 피해금액 : US\$ 570,000

국내기업 R사는 수단 소재 I사에 수년째 폴리우레탄 원료를 수출해왔다. 하지만, 거래 초반에만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2017년부터는 대금이 계속 연체되어 누적된 미수금이 57만 달러에 달했다. R사는 당초 원만한 해결을 위해 I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했으나, I사는 그동안의 시세 변경을 주장하며 막대한 할인 및 분할 변제를 요구했고, 나중에는 국내기업의 이메일, 전화를 지속적으로 회피했다. R사는 2019년 초부터 국내 로펌을 통해 미수금 회수를 추진 중이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피해를 접수한 카르툼 무역관은 I사를 직접 면담했으나, I사는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하면서 원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렸다. 결국 국내기업은 막대한 할인과 분할변제를 I사에 허용했으나, I사는 이마저도 일부만 이행하고, 국내기업 연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 □ 외상으로 거래했던 해외업체의 결제 회피

- 발생시기 : 2019년 1월
- 발생국가 : 미국
- 피해금액 : US\$ 350,000

국내기업 S사는 미국업체 H사와 외상으로 거래를 진행해왔으나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35만 달러 정도의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S사는 미국업체를 상대로 전화와 이메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속해서 요청했으나, 바이어는 곧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 책임자 퇴직과 CEO 변경에 따른 일방적인 거래 중단

- 발생시기 : 2019년 2월
- 발생국가 : 중국
- 피해금액 : 비공개

국내기업 A사는 중국기업 B사와 건축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 제조 기술을 20년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거래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오던 중, 어느 날 B사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직접 업체를 방문하였으나 당시 책임자는 퇴직하였고 CEO도 바뀐 상황이었다. 그러나 B사는 여전히 A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 기술을 다른 국가에 수출까지 했다. 현재 B사에서는 아무도 A사와의 계약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A사는 마지막 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당시 책임자도 없는 상황에서 A사는 수출계약서 하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점차 신뢰관계를 쌓은 후, 대금지급 거절

- 발생시기 : 2019년 3월
- 발생국가 : 말레이시아
- 피해금액 : 비공개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국내기업 S사는 말레이시아 바이어 A사와 국내 상담회에서 만난 후, 딸기를 수출하고 있다. 거래 초반에는 적은 물량으로 시작했지만 신뢰가 쌓이면서 거래 규모를 점차 확대했다. 그러나, 거래 규모가 커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이어는 현지 판매에 고전하고 있다며 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기업은 3개월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주었지만,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독촉을 해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바이어는 심지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이름만 바꿔 다른 한국업체와 거래를 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S사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소재 현지 변호사를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 소개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③ 선적불량

- 해외업체에 송금했으나 상품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거나, 불량품을 보내는 경우로 전체 무역사기 접수 건수의 16%를 차지
  - \* 아예 물품을 선적하지 않는 미선적 사례가 다수
- 동남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며, CIS, 중동,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
- 상품은 선적하지도 않고, 현지 세관을 핑계로 운송비, 로비자금,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추가로 갈취하는 경우도 있음.

< 선적불량 유형 대표 사례 >

#### □ 불량품을 선적한 캄보디아 업체

- 발생시기 : 2018년 9월
- 발생국가 : 캄보디아
- 피해금액 : 약 US\$ 50,000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D사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건강식품 원료를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해 현지에서 원료를 공급하는 A사와 거래를 시작했다. A사는 해당 원료의 수요가 많아 시장 가격이 매일 오르고 있어, 안정적으로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선금이 필요하다고 D사를 설득했다. D사는 결국 A사에 선금을 지급했고, A사는 제품 사진을 주기적으로 보내오며 구매자를 안심시켰으나 납품날짜를 수차례 미루다가 결국은 계약된 물량보다 적은 물량의 상품을 뒤늦게 보내왔다. 또한, 나중에 한국에 도착한 상품은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불량품이었다. D사는 A사에게 항의했으나 A사는 적반하장으로 구매자인 A사의 의도적인 바꿔치기라며, 배상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인근 국가로 자취를 감추었다.

## □ 인도 업체의 메탈 스크랩 무역사기

- 발생시기 : 2019년 1월
- 발생국가 : 인도
- 피해금액 : US\$ 70,310

국내업체 S사는 알루미늄 스크랩 수입처를 알아보던 중, 인도 G사로부터 톤당 700달러에 알루미늄 스크랩 100톤 정도를 수출할 수 있다는 오피를 받았다. 납품 기한이 매우 촉박한 상황에서 S사는 인도 업체와 사전송금 방식(T/T, 선금 40%, B/L 발송 후 60%)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대로 선금 40%를 송금했다. 그러나, S사가 나중에 G사로부터 받아본 B/L 사본에는 선적 품목명이 ‘메탈 스크랩’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S사는 G사에 항의를 했고, G사는 상품은 제대로 선적되었으나 “선사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며 S사를 안심시킨 후, 알루미늄 스크랩으로 품목명을 변경한 B/L을 재발행하여 S사에 보냈다. 이에 S사는 계약대로 나머지 잔금 60%를 송금했다.

그러나, 얼마 후 상품이 부산항에 도착했지만, 선사 측 B/L과 바이어로부터 받은 B/L의 물품명이 다르고 운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S사는 물품을 받을 수 없었다. 그 사이, 부산항 체화료(Demurrage Charge)는 800만 원이 넘었고, 끝내 인도업체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S사는 체념한 상태에서 해상운임 7,500달러와 체화료 80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였으나 컨테이너 내용물은 전부 쓰레기였다. 국내업체 S사는 현재 인도 현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 선적을 계속 미루는 러시아 수산업체

- 발생시기 : 2018년 9월
- 발생국가 : 러시아
- 피해금액 : US\$ 600,000

강원도 소재 K사는 약 1년 전, 러시아에 소재한 수산업체 A사와 선박 수리 및 수산물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A사의 배로 한국에 킹크랩과 명태를 싣고 가서 수산물은 K사에 납품하고 배는 K사가 섭외한 조선소에서 수리하고 귀국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K사가 선수금으로 60만 달러를 송금하였으나, A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선적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K사는 이에 러시아 변호사를 고용해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주고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 대금을 받고도 제품을 보내지 않는 영국 업체

- 발생시기 : 2019년 3월
- 발생국가 : 영국
- 피해금액 : 비공개

국내기업 B사는 2019년 3월 영국에 소재한 기업 A사와 압출기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대금 지급 후 상품을 제작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B사는 대금 전액을 송금했다. 그러나, 영국업체는 압출기를 납기일까지 보내지 않았다. 국내기업이 선적 일정을 A사에 문의해 보니 A사는 물량이 많아 생산이 늦어져 한 달 후에나 출고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왔다. 하지만, 국내기업 B사는 A사로부터 선적과 관련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다.

□ 정부의 벌금 부과를 구실로 선적을 미루는 남아공 업체

- 발생시기 : 2018년 9월
- 발생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 피해금액 : 약 US\$ 340,000

국내기업 A사는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A사는 100% 선금 지급 조건에 따라 약 2억 원에 달하는 물품 대금을 전액 송금했다. 그러나, B사는 현지 내륙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고,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핑계를 대며 선적을 지연시켰다. 그리고, B사가 벌금을 받아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자 A사는 자금도 빌려주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이후에도 B사는 선적은 물론 차입금 상환도 여러 차례 연기했고, 현지 외환 거래에 문제가 생겨 돈이 묶여서 자금이 필요하다며 또 다른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뒤늦게 사기를 의심한 A사는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무역관이 확인한 결과 B사가 현지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벌금을 부과 받은 일은 없었다. A사는 현재 남아공 현지 채권 회수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 ④ 금품사기

-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기유형으로, 전체 무역사기 접수 건수의 약 11%를 차지
- 사기업체가 주로 현지 정부기관 또는 에이전트를 사칭해 프로젝트 입찰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로비자금, 변호사 수임료 등을 요구
  - \* 일면식 없는 사기업체가 물품 구매를 희망한다며 이메일을 통해 접근함.
- 국내기업들이 해외업체와 교신하는 중간에 무역사기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음.

< 금품사기 유형 대표 사례 >

##### □ 가나 업체의 금품사기 시도

- 발생시기 : 2019년 7월
- 발생국가 : 가나
- 피해금액 : 없음

정수기 제조업체인 국내업체 A사는 가나 바이어 K사로부터 정부 납품과 관련된 이메일을 받았다. 가나업체는 A사가 가나에 정수기를 납품하려면 PPA Form과 Registration Requirement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 12,000 세디(약 250만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는 가나업체의 진의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아크라 무역관에 해당업체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고, 무역관이 가나 공공조달 정부기관인 PPA(Public Procurement Authority)에 확인한 결과, 동 계약 요청 건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K사에 대한 기업정보를 확인해보니 현지에 등록된 회사는 맞지만 담당자라고 메일을 보낸 사람과 동일한 직원이 없었고, 사기업체가 알려준 주소도 실제 주소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 □ 정부기관 입찰을 사칭한 수수료 편취 시도

- 발생시기 : 2019년 8월
- 발생국가 : 카타르
- 피해금액 : 없음

국내 제조업체 D사는 2019년 8월, 카타르 소재 입찰 공인 대리기관이라고 주장하는 M사로부터 카타르 정부기관인 이슬람 종교부(MEIA)가 발주한 입찰 공고가 있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국내 업체는 M사가 의심스러웠지만, 이후 MEIA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된 ‘Acknowledgement of your tender/offer’ 라는 이메일을 수신하고 M사와의 교신을 이어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M사는 D사에게 몇 가지 입찰 관련 서류양식과 함께 입찰수수료를 72시간 안에 송금하라는 이메일을 보내왔고, 사기임을 직감한 D사는 교신을 즉시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 □ 정부기관의 에이전트를 사칭하며 접근해 온 가나 업체

- 발생시기 : 2018년 10월
- 발생국가 : 가나
- 피해금액 : 없음

국내기업 B사는 최근 가나에 소재한 D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자신을 현지 정부기관 AUDC(African Union Development Council)의 에이전트라고 소개한 D사는 물품을 대량으로 주문하겠다고 하면서 B사에게 계약 체결을 위해 이번 주 내로 가나를 방문할 것을 요구했다. B사가 거절하자 바이어는 현지 변호사를 임명해서 계약서에 대리 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B사에게 현지 변호사를 통해 대리료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무역사기를 의심한 국내 업체는 아크라 무역관에 문의했다. 무역관은 D사가 현지에 존재하지 않고, 이전에 다른 국내기업으로부터도 유사한 문의를 받았던 사례를 공유하고 B사에게 D사와의 교신을 즉각 중단하도록 안내했다.

⑤ 서류위조

- 위조한 서류를 보내 기업을 안심시킨 후 운송비, 물품 등을 갈취하는 사기유형으로 사업자등록증, 송금증, 인보이스 등을 위조
- 동남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전체 사기 접수 건수의 약 10%를 차지
- 일반적으로 다른 사기유형과 결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거나, 초청장 발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공문서를 활용

< 위조된 서류 이미지 (좌 : 가나 / 우 : 카타르) >

<p>위조 또는 허위 문서는 포토샵이나 다른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편집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글꼴의 크기 및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상기 계약서는 서류 배경에 있는 로고가 심하게 깨져 있음.</p>	<p>이슬람 종교부를 사칭한 해외업체가 국내기업에 보내온 문서로, 실제 카타르 무역관이 이슬람 종교부에 문의한 결과, 레터의 정부 로고는 이슬람 종교부가 아닌 재무부 산하 입찰관리관의 로고로 밝혀짐.</p>

주) 상기 이미지는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에서 발췌함.

< 서류위조 유형 대표 사례 >

□ **가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커미션 편취 시도**

- 발생시기 : 2018년 10월
- 발생국가 : 카타르
- 피해금액 : 없음

카메라 관련 기자재를 수출하는 국내업체 A사는 카타르 도하에 소재한 B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B사는 자신을 카타르 이슬람 종교부의 에이전트라고 소개하고, 카타르 이슬람 종교부 프로젝트 구매부서에서 A사의 제품을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회사 ID카드를 첨부하고 5% 커미션을 요구했다. 사기를 의심한 국내업체는 도하 무역관에 기업정보 확인을 의뢰했고, 무역관 확인 결과 B사가 보내 준 서류와 회사 ID카드는 카타르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고, 허술하게 위조한 가짜 서류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기업명으로는 카타르 상공회의소와 구글 등에서 어떤 검색도 되지 않아 기업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다.

□ **은행서류 위조를 통한 물건 편취 시도**

- 발생시기 : 2019년 5월
- 발생국가 : 영국
- 피해금액 : 없음

2019년 5월 국내업체 Y사는 영국 S사로부터 구입주문서(P/O)를 받았다. 영국 S사는 HSBC 은행에서 발급받은 자금증명서를 첨부했으니, 검토 후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활용해 물건 납품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기를 의심한 Y사는 런던무역관에 확인을 요청했다. 무역관 입장에서는 영국 업체가 보낸 서류가 처음 보는 서류 형식일 뿐만 아니라, HSBC와 같은 글로벌 은행이 이런 양식의 확약을 해줄 리 만무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역관에서는 국내업체에게 S사와 교신을 중단하도록 안내했다.

□ 허위 서류로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을 사칭

- 발생시기 : 2018년 11월
- 발생국가 : 말레이시아
- 피해금액 : US\$ 5,600

국내기업 S사는 중국 B2B 플랫폼 알리바바를 통해서 알게 된 말레이시아 A사로부터 1개 컨테이너 물량의 제품 샘플을 구입하기로 하고 8,000 달러 상당의 계약을 선금 30%, 잔금 70% 지불 조건으로 체결했다. S사는 계약조건대로 선금을 송금했으나 말레이시아 A사는 S사에게 첫 거래이기 때문에 잔금을 송금해주면 원본 B/L을 송부해주겠다고 주장해서 A사는 잔금까지 송금했다.

그러나, S사가 잔금을 송금하자 해당 말레이시아 업체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국내업체가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말레이시아 A사를 사칭한 업체가 서류를 위조해서 사기를 벌였으며, S사가 가지고 있는 A사의 연락처는 회사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폰 번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유명 페인트 제조사의 문서를 위조한 사기 업체

- 발생시기 : 2018년 9월
- 발생국가 : 케냐
- 피해금액 : US\$ 150,000

국내기업 H사는 케냐 1위 페인트 제조사로부터 우간다 지사에 페인트 제조 원료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구매의향서를 접수하고, 물품을 선적했다. 그러나, 결제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면서 H사는 나이로비 무역관을 찾아 왔다. 무역관이 해당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국내기업과 실제 교실했던 직원은 해당 기업의 직원이 아니었고, 업체가 보낸 문서에 삽입된 로고도 정식 로고가 아니라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도용한 로고였다.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된 H사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피해금액을 변상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⑥ 불법체류

- 제품 확인을 목적으로 국내 초청장을 요구한 후, 입국 후에 잠적하는 유형으로 발생 비중은 낮은 편이나 매년 사례 접수
-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기 유형으로, 처음부터 바이어로 위장한 사기업체가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국내업체에 접근

< 불법체류 유형 대표 사례 >

### □ 공장 방문을 목적으로 방한 초청장 요구

- 발생일시 : 2018년 9월
- 발생국가 : 에티오피아
- 피해금액 : 없음

에티오피아에 소재한 A사는 한국 방문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주에티오피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했다. 대사관 영사과는 A사에게 한국기업의 초청장이 없으면 비자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A사는 마치 거래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업체 M사에게 접근하여 발주계획을 전달하고, 견적서를 요청했다. 그리고, A사 대표와 엔지니어가 직접 한국공장을 방문하고 싶다며 방한 초청장 발급을 요구했다.

A사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던 M사는 초청장을 발급해 주었고, 바이어는 M사가 보내준 서류를 가지고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후 국내에 입국한 두 명은 모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⑦ 기타

- 해외투자 등 유형 분류가 어려운 사기 유형은 모두 기타로 집계
- 해외투자과 관련된 사기는 매년 꾸준히 접수되는 사기유형으로, 국제거래가 점점 다양해지며 관련 사례 증가 추세
-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 사례, 컨테이너 탈취 시도 사례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 발생

### < 기타 유형 대표 사례 >

#### □ 컨테이너 탈취를 시도한 알제리 업체

- 발생시기 : 2019년 8월
- 발생국가 : 알제리
- 피해금액 : US\$ 204,000원

약 2년 전,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국내기업 A사는 수년간 거래해왔던 알제리 기업 N사와 2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선적했다. 그러나, 컨테이너가 알제에 도착한 후에도 N사는 경영 및 자금 문제를 핑계로 통관을 미루었고, 결국 A사는 손해를 감수하고 1년 반 뒤 상품을 재수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N사는 통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A사를 속여 현지 세관과 은행에 로비할 자금으로 4천 달러를 요구하면서 6개월 이상 통관을 지체시켰다. 게다가, N사는 컨테이너 도착 증빙과 컨테이너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A사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A사는 관련해서 알제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무역관 담당자가 직접 세관을 방문했다. 조사 결과, 바이어는 처음부터 악의를 갖고 통관을 지연시키고 재수출 절차를 방해함으로써 컨테이너가 세관에 압류당하기를 기다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컨테이너를 탈취할 목적으로 위임장을 요구했던 것이다.

□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법적 분쟁

- 발생시기 : 2019년 4월
- 발생국가 : 중국
- 피해금액 : US\$ 35,300

한국 투자가 A씨는 중국 투자가 B씨와 함께 중국에서 교육학원을 설립했다. 학원 법인대표명으로 A씨의 이름을 올리고, B씨는 사업 지분의 20%를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2018년 교육 환경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이 현지에서 학원비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심지어, 상황이 악화되면서 학부모들은 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학원에 벌금 25만 위안이 부과되자 B씨는 모든 책임을 회피했고, 법인 대표로 등재된 A씨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다.

□ 구두 계약을 믿고 추진한 거래에 따른 손해

- 발생시기 : 2019년 4월
- 발생국가 : 몽골
- 피해금액 : US\$ 6,000

국내기업 S사는 포장재 제조 전문업체로 몽골업체에 수년간 특수 포장재를 수출하며 거래관계를 이어왔다. 그리고, 올해 초 S사는 몽골업체로부터 식품 포장기계를 주문받고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품을 먼저 보내고 대금을 사후에 받는 것으로 구두 계약을 통해 거래를 진행했다.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바이어라 큰 의심은 하지 않았고, 이후에 미리 주문한 기계에 대한 견적서를 몽골 바이어에게 보냈다. 그러나 막상 견적서를 받아본 바이어는 예상보다 가격이 높아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를 수리해서 쓰겠다며 기계 수입을 거절했다. 예상과 다른 결과에 S사 담당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으나 해당 몽골업체는 현지 대기업이라 향후 비즈니스 관계를 생각하면 시시비비를 따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태양광 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사칭한 투자 권유

- 발생시기 : 2019년 5월
- 발생국가 : 태국
- 피해금액 : 없음

방음벽을 생산하는 국내업체 M사는 태국 소재 A사로부터 태양광 관련 프로젝트를 제안 받았다. M사는 프로젝트 수주업체로 소개받은 태국 T사와 K사 정보, 업체에서 보내준 계약서와 은행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업체의 진정성 및 서류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자 방콕 무역관으로 문의했다.

무역관 확인 결과 T사와 K사 모두 실존기업으로 확인되었지만 프로젝트 수주 여부와 관련하여 태국 내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을 담당하는 에너지 규제위원회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업체 목록에서는 두 업체 모두 조회되지 않았다. 또한, 업체가 보내온 은행 서류들은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은 일치하지만, 계좌잔고나 신용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업체의 사업 수행능력을 판단하는데 유의미한 증빙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방콕 무역관은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진위여부 문의가 2018년에만 세 차례나 접수되었던 점, 두 업체 모두 신생기업이며 추진하는 프로젝트 규모가 지나치게 큰 점을 근거로 M사에게 A사와의 거래에 신중을 기하도록 권유하였다.

### III

## 무역사기 유형별 대응방안

### ① 이메일 무역사기

-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면서 제3의 계좌로 돈을 송금토록 유도하는 것은 이메일 무역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므로 주의 필요
  - 거래업체가 다른 계좌번호를 안내할 때는 유선, 팩스, 화상통화 등 이메일 외 교신수단을 이용해 재확인 요망
  - 해외업체 소재지와 대금 수취은행 소재지가 상이할 경우 주의 필요
    - \* (예시)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거래 중인데 대금은 터키로 보내라는 경우에는 유선으로 재확인 필요

#### < 계약서 작성 시 TI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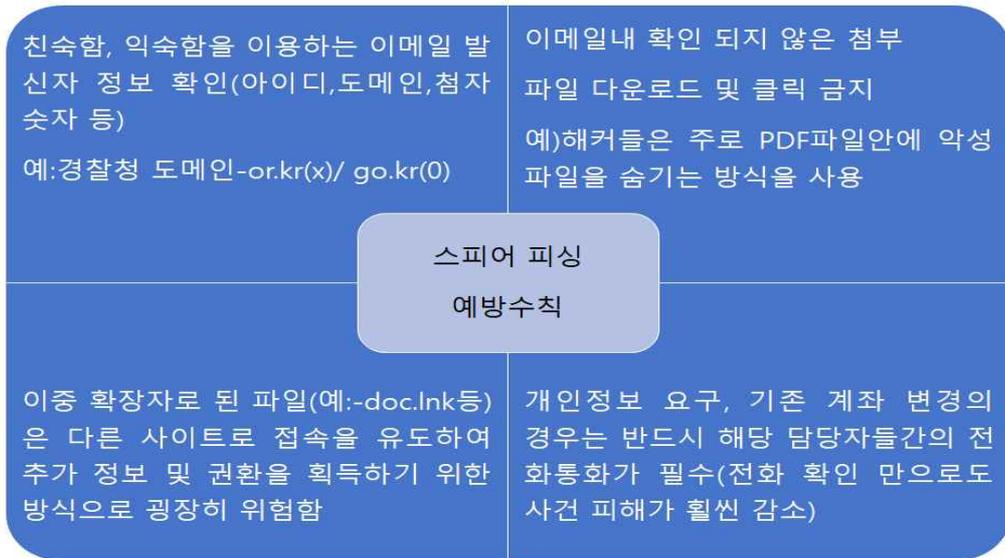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거래조건이나 수취계좌 변경 시 양측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명문화할 경우, 위와 같은 이메일 해킹을 통한 계좌 변경 시 대금 오지급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설령 오지급이 되더라도 어떤 행동절차를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음. 사고 발생 시 50 : 50 책임 분담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양사가 모두 거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음.

- 이메일 보안은 철저하게, 이메일 발신자 정보는 꼼꼼하게 확인할 것
  - 이메일 비밀번호는 자주 변경하고, 최신 보안 프로그램 설치 필요
  -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절대 열람하지 않고 즉시 삭제 요망
    - \* 특히 첨부파일 열람 금지. 첨부파일 내 악성코드를 통해 서버에 침투 가능
  - 해커는 숫자, 첨자 추가, 철자 변경 등 교묘하게 변경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므로 이메일 주소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

#### < 이메일 주소를 교묘하게 변경한 사례 >

- ① widgetspo@freemail.com -> widgettpo@freemail.com (중간철자 삭제)
- ② acmepof868@freemail.com -> acmepof686@freemail.com (숫자 재배치)
- ③ iamthebest@kora.com -> iamthebest@krea.com (도메인변경)
- ④ sales@gmail.com -> sales@gmail@com (글자변환)
  - \* 소문자 l을 대문자 I로 변경함. 이 경우, 글꼴 크기를 키워서 확인해보면 구분 가능함.

< 무역사기에 이용되는 스피어피싱 예방수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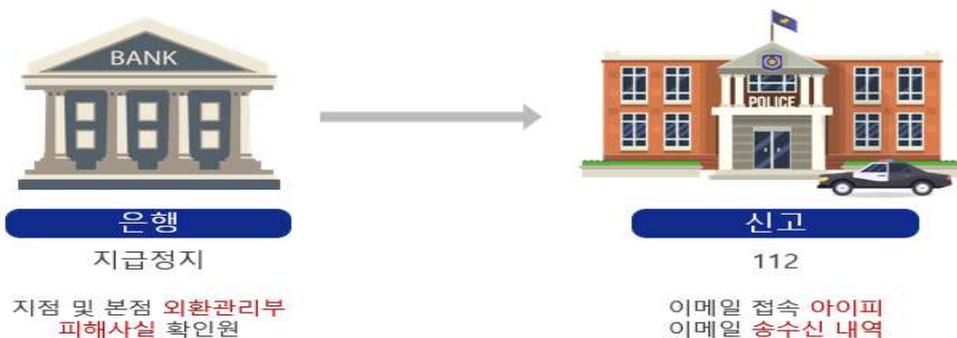


자료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피해 발생 시 가장 먼저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필요

- 이메일 무역사기로 탈취한 대금은 중간지 은행을 경유해 최종 도착지로 입금되기 때문에 곧바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 지급정지 요청 후, 계좌 상세 내역이 포함된 송금 내역과 해커가 발송한 이메일 내용을 모두 취합해 사업장이 있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신고

< 이메일 무역사기 신고방법 >



## ② 결제사기 / 선적불량

### ○ 거래 전 상대 해외업체의 실존 여부, 신용도 파악은 필수

- 최소 두 가지 이상 채널을 통해 거래기업의 신용도 검증 필요
  - \* 신용정보, 재무제표,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기업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현재 교신 중인 담당자와 통화해 볼 것

#### < 해외기업 확인 서비스 (국내) >

- KOTRA 무역투자 상담 서비스 이용(무료) [www.kotra.or.kr/kh/main/customerMain.do](http://www.kotra.or.kr/kh/main/customerMain.do)
- 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유료) [www.ksure.or.kr/service/importer03.do](http://www.ksure.or.kr/service/importer03.do)

### ○ 과도하게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의심 필요

- 일면식 없는 바이어가 대량 주문, 선금 제안 등 우호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며 급하게 거래를 추진할 경우, 무역사기일 확률이 높음.
- 교신 중 조금이라도 무역사기가 의심된다면 거래 중단이 안전함.

### ○ 신흥국과의 거래, 대형 거래인 경우, 무역보험, 신용장 거래 등을 통한 안전장치 확보 필요

- 신흥국은 바이어 지급능력이 낮고 변수가 많아 무역보험 가입 권장
- 큰 거래량이라면 물량을 나누어서 진행하거나 담보 요구, 선금 비율 조정 등 결제 미이행에 대한 대비 장치 마련 필요
- 첫 거래 시에는 은행보증지급 방식인 신용장(L/C) 거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

### ○ 사고 발생 시 소송, 채권추심, 상사중재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

- 거래액이 크다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 \* 다만 현지 법적 소송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 중재\* 서비스 이용 또한 검토해볼 것
  - \* 분쟁 발생 후에는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 중재조항을 삽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 ③ 금품사기

#### ○ 주요 발생 지역(아프리카, 중동)과 금품사기 패턴을 미리 숙지할 것

- 금품사기는 90% 이상 아프리카, 중동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거래할 때는 특히 주의 필요

\* (주의국) 가나, 카타르, 베냉, 토고, 수단, 나이지리아

- 이메일에 변호사, 정부입찰, 공증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보증금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우선 의심할 필요

#### < 카타르에서 발생하는 금품사기 피싱 메일 특징 >

- ① 정확하지 않은 기업정보 : 현지기업 및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나 도용한 전화번호를 사용
- ② 거래하려는 품목에 대한 논의보다는 계약을 급하게 추진 : 사기시도 집단은 다수의 사기대상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초기 이메일에 제품명을 기재하기보다는 ‘당신의 제품(Your product)’이라며 모호하게 언급
- ③ 거래규모가 큰 투자 또는 정부기관 입찰 참여를 제안 :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큰 규모의 거래나 투자를 제안하고 정부기관의 입찰임을 강조
- ④ 조잡하고 허술한 공문서 양식 사용 : ‘Top Secret’, ‘Confidential’, ‘Urgent’와 같은 과장된 표현을 함께 사용

### ④ 불법체류

#### ○ 초청장 발급 전, 바이어 신용도 확인 필수

- 위장취업, 난민신청 등 비즈니스 외 다른 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위장 바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KOTRA 해외무역관 등을 통한 바이어 정보 확인 필수
- 바이어가 이미 입국해 불법체류를 할 경우 소재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사전 주의 필요

☞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범 신고 대표번호 : ☎ 1588-7191

## ⑤ 서류위조

- 인보이스 등 서류에 기재된 기업정보를 철저히 검증해 볼 것
  - 인보이스에 기재된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사업장 주소 등을 자세히 확인할 것

### < 인보이스 내 체크리스트 >

- ① 기업명과 인보이스에 적힌 주소가 일치하는가
- ② 전화번호가 해당 국가 내 지역번호와 일치하는가
- ③ 계좌번호 소재지가 혹시 거래기업 소재지 외 국가로 되어있는가

- 문서를 확대해 첨부된 이미지를 자세히 확인해 볼 것
  - 위조 또는 허위 문서는 포토샵이나 다른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편집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글꼴의 크기 및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 정부 로고나 날인을 합성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해당 이미지들은 대부분 픽셀이 일정하지 않음.

## ⑥ 기타

- 투자를 목적으로 해외업체가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 필요
  - 잘 모르는 기업이 접근해 국내기업에 투자를 원한다며 그 과정에서 수수료 등 금품을 요구한다면 의심해 볼 것
- 구두계약보다 확실한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
  - 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구축한 바이어라 하더라도 구두계약을 한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또한, 구두계약은 계약내용 입증에 어려워 분쟁소지가 크므로 국내거래에 있어서도 문서화 필요
  - 특히 대형 바이어와 거래하는 경우, 상대의 요구사항을 맞춰주면서 서류작성을 소홀히 하거나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필요

## IV

## 관련 웹사이트 주소

NO	국가명 (지역)	기관 / 사이트명	웹사이트 주소
1	한국	KOTRA	<a href="http://www.kotra.or.kr/kh/main/customerMain.do">http://www.kotra.or.kr/kh/main/customerMain.do</a>
2	한국	KOTRA 해외시장뉴스	<a href="https://news.kotra.or.kr/kotranews/index.do">https://news.kotra.or.kr/kotranews/index.do</a>
3	한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a href="https://cyberbureau.police.go.kr/index.do">https://cyberbureau.police.go.kr/index.do</a>
4	한국	한국무역보험공사	<a href="https://www.ksure.or.kr/index.do">https://www.ksure.or.kr/index.do</a>
5	한국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a href="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a>
6	한국	대한상사중재원	<a href="http://www.kcab.or.kr/jsp/kcab_kor/index.jsp">http://www.kcab.or.kr/jsp/kcab_kor/index.jsp</a>
7	한국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a href="https://www.9988law.com:19267/">https://www.9988law.com:19267/</a>
8	중국	중국기업 신용조사사이트	<a href="http://www.gsxt.gov.cn">http://www.gsxt.gov.cn</a>
9	홍콩	홍콩 기업등록국	<a href="http://www.icris.cr.gov.hk">http://www.icris.cr.gov.hk</a>
1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자공시	<a href="https://www.sec.gov/edgar/searchedgar/companysearch.html">https://www.sec.gov/edgar/searchedgar/companysearch.html</a>
11	미국	화이트 페이지*	<a href="https://www.whitepages.com/phone">https://www.whitepages.com/phone</a>
12	미국	링크드인*	<a href="http://www.Linkedin.com">http://www.Linkedin.com</a>
13	영국	기업등록국	<a href="https://www.gov.uk/get-information-about-a-company">https://www.gov.uk/get-information-about-a-company</a>
14	독일	기업등록국	<a href="http://www.handelsregister.de">http://www.handelsregister.de</a>
15	독일	함부르크 상공회의소 (사기기업 목록 제공)	<a href="https://www.hk24.de/en/produktmarken/international/import-export/fraud-companies-hanseatic-disguise/1159310">https://www.hk24.de/en/produktmarken/international/import-export/fraud-companies-hanseatic-disguise/1159310</a>
16	캄보디아	기업등록국	<a href="https://www.businessregistration.moc.gov.kh/">https://www.businessregistration.moc.gov.kh/</a>
17	태국	기업등록국	<a href="http://www.dbd.go.th/Applications/cds/">http://www.dbd.go.th/Applications/cds/</a>
18	말레이시아	기업등록국	<a href="http://www.ssm-einfo.my">http://www.ssm-einfo.my</a> <a href="http://www.ramcreditinfo.com.my">http://www.ramcreditinfo.com.my</a>

주1) 화이트 페이지 : 미국 최대 온라인 디렉토리 서비스로 개인과 기업 연락처 DB 보유

주2) 링크드인 : 세계 최대 비즈니스 특화 SNS로 담당자 정보 확인 가능

## 2019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9-001 ~ 19-080	2019 국별 진출전략 (80개국)	2019.1
19-081	2018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19년 상반기 전망	2019.1
19-082	EU-일본 EPA발효에 따른 유럽내 한일 수출경합분석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2019.1
19-083	브렉시트 진행경과와 해외 주요 반응	2019.2
19-084	러시아 혁신 성장정책의 평가와 협력 시사점	2019.5
19-085	2019년 호주 총선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19.5
19-086	2019년 인도 총선 결과와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9.5
19-087	4차 산업혁명시대, 일본기업의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사례 연구	2019.7
19-088	극동러시아 유망 창업아이템과 진출방안	2019.7
19-089	2019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19.7
19-090	2019 중동 주요국 제조업 활성화 정책과 대응 방안 - GCC국가(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2019.7
19-091	2019 중동 주요국 제조업 활성화 정책과 대응 방안 - 비GCC국가(터키, 이집트, 알제리, 요르단)	2019.8
19-092	WTO 개도국 지위 관련 주요국 동향 및 현지 반응	2019.8
19-093	최근 미중 통상분쟁의 확산 동향	2019.9
19-094	미일 무역협정 서명에 따른 현지 반응	2019.9
19-095	러시아 시장환경과 경제협력: 의료기기	2019.10
19-096	러시아 시장환경과 경제협력: 조선	2019.10
19-097	캐나다 2019 총선결과 및 향후 전망	2019.11
19-098	2018/19 무역사기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	2019.11

□ GTR (Global Trade Report)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9-001	2018년 12월(연간) 수출 동향	2019.1
19-002	2019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2019.1
19-003	2019년 1월 수출 동향	2019.2
19-004	2019년 2월 수출 동향	2019.3
19-005	2019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9.3
19-006	2019년 3월 수출 동향	2019.4
19-007	2019년 4월 수출 동향	2019.5
19-008	2019년 5월 수출 동향	2019.6
19-009	2019년 상반기 수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19.7
19-010	2019년 6월 수출 동향	2019.7
19-011	2019년 3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9.7
19-012	2019년 7월 수출 동향	2019.8
19-013	2019년 4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9.9

□ GIP (Global Issue Paper)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9-001	트럼프 행정부의 對쿠바 제재와 주요국 반응	2019.6
19-002	글로벌 희토류 산업 동향	2019.7

□ KOTRA자료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9-002	외국인투자기업 우수채용사례집	2019.1
19-003	2018 FTA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사례집	2019.1
19-004	海外進出 韓國部品・素材サプライヤーディレクトリ 2018	2019.1
19-005	해외로 나간 청년들 세계를 JOB다: 2018 해외취업성공수기집	2019.1
19-006	중국 수출 통관가이드 유망품목 25選	2019.1
19-007	방산수출 종합 가이드북	2019.2
19-008	2019 해외진출 종합 핸드북	2019.2
19-009	외국인투자 가이드 2019	2019.3
19-010	Doing Business in Korea 2019	2019.3
19-011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	2019.3
19-012	글로벌 친환경 선박기자재 시장동향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2019.3
19-013	한국 기업의 신북방지역 협력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보고서	2019.3
19-014	스마트그리드 시장동향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2019.3
19-015	스마트헬스 시장동향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2019.3
19-016	2018-2019 지사화 우수사례집	2019.3
19-017	2018 KOTRA 글로벌 CSR 성과보고서	2019.3
19-018	기업이 전하는 경제외교 기업활용 성공스토리	2019.4
19-019	스타트업을 위한 일본창업가이드	2019.4
19-020	外商投資指南	2019.4
19-021	外國人投資ガイド	2019.4
19-022	2018 KOTRA 지속가능경영 & 인권경영 보고서	2019.4
19-023	2018 KOTRA Sustainability and Human Rights Management Report	2019.4
19-024	2018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9.4
19-025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8	2019.4
19-026	2018 IP-DESK백서	2019.4
19-027	2018 IP-DESK백서 부록.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실무가이드북(중국,미국,일본)	2019.4
19-029	2017/18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이란: 이란 지적재산권 선진화를 위한 정책수립 지원 방안	2019.4

19-030	2017/18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Iran: Policy Consultation to Strengthen IRAN's Intellectual Property Infrastructure	2019.4
19-031	2019년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	2019.4
19-032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2019.4
19-033	중국 엔젤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20개 주요품목 중심으로	2019.4
19-034	알기쉬운 브라질 노동법 (개정판)	2019.5
19-035	제14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공식 디렉토리북	2019.5
19-036	GP知己로 글로벌 기업의 파트너가 되다: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 참가기업 성공스토리	2019.5
19-037	2017/18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러시아 :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수출지원센터를 활용한 수출활성화 방안	2019.5
19-038	2017/18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Khabarovsk Krai : Policy Recommendation for Developing Export Potential and Strengthening the Export Support System of Khabarovsk Krai	2019.5
19-039	2017/18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인도 : 인도 투자유치 기관 발전 전략 수립 지원	2019.5
19-040	2017/18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India : Policy Recomme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vest India	2019.5
19-041	2017/18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쿠바 : 쿠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정책 수립	2019.5
19-042	2017/18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Cuba : Establecimiento de Políticas para Dinamizar la Creación y la Administración de Complejos Industriales en Cuba	2019.5
19-043	고용계약형 FTA 실무과정 참고교재	2019.6
19-044	국제 개발협력사업 활용 가이드	2019.6
19-045	사우디아라비아 취업 및 창업 가이드	2019.6
19-046	북미 자동차 시장 진출 가이드	2019.6
19-047	해외 혁신클러스터 현황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	2019.6
19-048	중국 시니어 비즈니스 동향 및 유망품목 20선	2019.7
19-049	EU 진출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핸드북	2019.7
19-050	인도로 가자! 인도 수출통관 알기 - 인도 관세 핸드북	2019.7
19-051	2019 글로벌 IP 이슈페이퍼	2019.7
19-052	2018 북한 대외무역 동향	2019.7
19-053	퀀텀점프를 위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도전기	2019.7

19-054	SEOUL FOOD 2019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결과보고서	2019.9
19-055	TAMAS 2019 제13회 대전국제농업기술전 Official Directory	2019.9
19-056	2018 K-V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 Enhancing Capacity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egislations in Vietnam	2019.9
19-057	2018 K-V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 Information Sharing for Vietnamese Government Authorities and Enterprises on Korea's Adoption of the Positive List System	2019.9
19-058	2018 한-베 통상연계형 경험사업 - 베트남 공정경쟁 역량강화	2019.9
19-059	2018 한-베 통상연계형 경험사업 - 한국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관련 對베트남 정보 확산	2019.9
19-060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2019.10
19-061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문화마케팅 전략	2019.10
19-062	NYC Startup & Beyond	2019.10
19-063	2020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019.10
19-064	2019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19.10
19-065	2019년 외국인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19.10
19-066	지속가능경영과 세계의 비즈니스	2019.10
19-067	해외로 나간 청년들 세계를 JOB다: 2019 해외취업성공수기집	2019.11
19-068	아세안 10개국 팩트시트	2019.11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9-001	2019 KOTRA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9.1
19-002	buykorea를 활용한 온라인수출마케팅 설명회	2019.1
19-003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35차 수요포럼: 해외건설 계약 분쟁 및 중재	2019.1
19-004	2019 방산·보안기업 지원 사업설명회	2019.2
19-005	2019 KOTRA · KoSEA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2019.2
19-006	2019 글로벌 의료기기 진출전략 설명회	2019.3
19-007	2019 해외공공조달시장 교육 세미나	2019.3
19-008	MWC 2019 디브리핑 세미나	2019.3
19-009	2019 UN 조달 플라자	2019.4
19-010	Global Project Plaza 2019 : Global Project Forum	2019.4

19-011	Global Project Plaza 2019 : Urban Transportation Environment	2019.4
19-012	Global Project Plaza 2019 : Oil & Gas·Power·Energy	2019.4
19-013	Global Project Plaza 2019 : Business Opportunities in Iraq	2019.4
19-014	Global Project Plaza 2019 : Smart City	2019.4
19-015	Global Project Plaza 2019 : Exploring Business Opportunities with DEWA-Government of Dubai	2019.4
19-016	미국 투자환경 설명회	2019.4
19-017	수출지원사업 체험 설명회: 기업이 묻고, KOTRA가 답하다	2019.4
19-018	KOTRA 찾아가는 수출세미나(인천) - 해외진출 소통DAY	2019.5
19-019	중미·메르코수르 진출환경 설명회	2019.5
19-020	2019 하노버 산업박람회 디브리핑 세미나	2019.5
19-021	비욘드 뷰티, 비욘드 차이나(Beyond Beauty & Beyond China) 설명회	2019.5
19-022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36차 수요포럼: 한국형 도시모델 수출 성과와 과제	2019.6
19-023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용 설명회 자료	2019.6
19-024	2019 Invest KOREA 포럼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포럼	2019.6
19-025	베트남 광응아이성 투자환경 설명회	2019.7
19-026	KOTRA 찾아가는 수출세미나(광주전남) - 해외시장 온라인 마케팅 세미나	2019.7
19-027	KOTRA 찾아가는 수출세미나 - 소셜벤처·스타트업의 꿈을 키워라!	2019.7
19-028	세계로포럼 - 불안정한 국제 교역환경, 새로운 돌파구는?	2019.7
19-029	베트남 식품가공 부품소재 산업 투자환경설명회	2019.8
19-030	Global Green Hub Korea 2019: Global Environment · Energy Vision Forum 2019	2019.9
19-031	Global Green Hub Korea 2019: Project Seminar - Environment	2019.9
19-032	Global Green Hub Korea 2019: Project Seminar - Renewable Energy	2019.9
19-033	인도 CSR 의무화법 개정 설명회 자료	2019.9
19-034	한-베트남 통상 확대를 위한 FTA 경제협력 성과확산 세미나	2019.9
19-035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세미나	2019.9
19-036	2019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 포럼	2019.10
19-037	글로벌 신통상포럼	2019.10
19-038	2020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설명회	2019.10
19-039	외국인투자기업 취업상담회(IKW 2019 Job Fair)	2019.10

작 성 자

- 시장정보팀                      장연주 외 129개 무역관

Global Market Report 19-098

2018/19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9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시장정보팀  
                  |    (02-3460-7409)  
I S B N     |    979-11-6490-067-1 (95320)

---

# Global Market Report

---